

여성의 예절교육 활동에 관한 소고

A Study of *Yejeol* (Women's Education Activity)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김 정 화*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부 교수 주 영 애**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Doctoral program Kim, Jeong Hwa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Ju, Young Ae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Women's education activity(*yejeol*) has seen changes and improvements, as Korean society has evolved overtime. Women have been actively addressing contemporary demands b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oday's women-centered education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yejeo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ejeol* was mainly driven by women wanting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volunteer activities, as a means of self-improvement.

Second, as a field of service, *yejeol* has become more lucrative; increasing numbers of young women are participating in the *yejeol* service industry.

Third, *yejeol* is taking place nationwide. Women are constantly making efforts to acquire expertise by participating in *yejeol* instructor training programs and obtaining licenses.

Fourth, the writing of *yejeol* books by women scholars has improved the *yejeol* environment.

* 주저자: 김정화 (E-mail: jhkim124@hanmail.net)

** 교신저자: 주영애 (E-mail: jyoungae@sungshin.ac.kr)

Further improvements to *yejeol* in Korea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an in-depth and critical study of its origins,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Key Words : 여성(Women), 예절교육(*yejeol*), 예절 단체(*yejeol organizations*), 여성학자(women scholars), 예절서적(*yejeol books*)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현재 우리사회의 예절교육은 여성들의 참여와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성들의 예절교육 참여 초기에는 여성 가정학자들에 의한 학교 내에서의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¹⁾이었으나, 현재는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예절교육기관에서 일반여성들이 참여한 예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예절교육은 1970년대 이후 예절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선구자적인 해안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민간예절교육기관이 개설²⁾되면서 부터였다. 여성들의 예절교육 참여는 1970년대 소수에 불과했던 사회예절교육기관이 현재 전국에 486개소 이상의 기관으로 증가(표2 참조)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교육기관의 양적 성장 외에 이들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예절교육의 필요성이 증가³⁾하고 있으며, 예절강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⁴⁾,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영역이 증가하고 역할의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비해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예절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민간단체에 소속해 있어서 더욱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우리사회에서 예절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예절교육기관에 대한 자료 보유나 예절관련학과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예절교육은 제도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예절교육 활동에 대한 자료나 참여율조차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예절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예절교육요구도와 같은 예절교육대상과 예절행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예절 교육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 예절활동과 관련된 연구로는 예절지도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과 활동에 관한 조희진·문혜숙·김정신(1997), 계선자(1999)의 연구가 있을 뿐 여성들의 예절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1970년대 이후 30여년의 기간 동안 예절교육을 위해 활동

- 1) 1960년에 최옥자의 '에티켓'이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출판되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예절과 관련된 저술은 주로 가정학자에 의한 것이었다.<표 6 참조>
- 2) 그 시작은 1974년 강영숙에 의한 예지원 설립이었다.
- 3)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도 2011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창의 인성교육'을 도덕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게 하고 있다.
- 4) 하명희(2010)의 연구에 의하면 예절을 전문성이 필요한 교과목으로 보고 예절전문강사에 의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해온 여성들의 노력이 자칫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970년대부터 예절교육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예절교육 여성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은퇴할 시점에 이르고 있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 지도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예절교육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활동했던 자료가 민간예절단체에 국한되어 사회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절교육의 역사에 있어서 이들의 존재가 자리매김할 방법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연구자들이 예절교육 분야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하여 바르게 평가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정리하여 남길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예절교육역사와 역사속의 여성 역할 또한 바르게 기술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절교육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예절활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성들의 예절교육 참여 과정과 활동에 대한 자료 고찰을 통해 향후 예절교육에서의 여성의 역할 재조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들의 예절교육활동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첫째, 여성들이 예절교육에 참여하기 전 우리나라 여성들의 역할변화과정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둘째, 여성들이 예절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셋째, 여성들의 예절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한 여성들과 이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성장시킨 예절교육단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넷째, 예절교육에 있어서 여성들의 전문성 강화와 그를 위한 자격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섯째, 예절교육의 실천에 못지않게 학문적 연구의 성과를 이룬 여성들과 그들이 집필한 예절서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각종 학위논문·학술지·단행본 등의 문헌자료와 국내 일간지 기사·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헌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예절·여성·시민의식·가족·매너’를 keyword로 검색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색하여, 약 150편 이상의 자료를 수집·참고로 하였다. 그 중 예절과 여성의 지위변화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일간지는 1945년에서 1999년까지는 포털사이트인 Naver의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3개 일간지(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옛날 신문보기에서 ‘예절·여성’을 keyword로 검색된 모든 자료를 참고하였다. 동아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신문의 3개 일간지에서 예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색하면 사회적인 경향에 대해 3개 일간지에 공통으로 게재되고 있었다. 이에 3개 일간지로 동시대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 수집과 사회적 사건의 전개에 대해 참고하였다. 2000년 이후의 자료는 Naver의 신문보기로 모든 일간지를 대상으로 검색하여 참고하였다.

website를 활용한 자료검색은 첫째, 예절단체와 여성들의 예절교육활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절’을 keyword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그 중 67곳의 예절단체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여성들이 책임자로 있으면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활동을 시작한 단체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즉 여성들의 예절교육 참여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여성 지도자 단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예절자격증 자료를 위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예절자격증 발급 단체 18곳의 website를 방문하여 자료를 구하였다. 예절단체의 website를 활용한 자료수집 중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책임자에게 유선으로 자료협조를 요청하여 참고하기도 하였다.

여성들의 예절서적 자료 수집을 위해 역사가 깊고 장서량이 많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성신여자대학교 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특히 성신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여성학자들의 예절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학임을 감안하였다. 이들 5곳의 도서관 장서를 ‘예절·매너·에티켓’으로 검색한 결과 1945년부터 2010년까지 총 422권의 예절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여성들이 집필한 예절서 101권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를 위하여 주로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website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대중매체에 소개되지 않았거나 인터넷의 website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 각지에서 예절을 교육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여성들이 집필한 예절서적 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5곳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예절서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기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II. 본론

1.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교육 기회 확대에 따른 예절교육의 변화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남성과는 달랐다. 여성은 대외적인 활동이 제한되었고 순종이 강조되었으며 교육의 기회도 제한되어 있었다.⁵⁾ 여성은 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예의범절 교육이 이루어졌을 뿐 사회생활예절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0년대 말 한국전쟁 후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한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여성도 남성과 같이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여성에게도 사회생활예절을 익힐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이 지식과 교양이 부족하여 문화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지식과 교양을 흡수하고 연마하여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였다(김복순, 2007 : 18).

〈표 1〉 백과사전 예절서 (1959년~1980년)

No.	년도	서명	출판사
1	1959	현대여성생활전서 (제8권 예절)	여원사
2	1960	사교예의전서	학원사
3	1964	현대여성라이브러리 (제3권 여성과 에티켓)	삼중당
4	1969	새생활대백과사전 (제5권 에티켓·사교·서한·교양)	서문당
5		(원색) 현대여성백과사전 (제2권 사교·에티켓)	삼중당
6	1974	(생활인을 위한) 에티켓 백과	삼성출판사
7	1975	새여성 생활 대백과 (제6권 에티켓·사교·의례·서한)	중앙문화사
8	1977	새여성 생활 대백과 (제7권 의례·교양·에티켓)	범양사
9		(원색)여성생활대백과 (제4권 에티켓·미용·서한·예능교습)	태극출판사
10	1980	현대생활백과대사전 (제6권 미용·에티켓·꽃꽂이)	금성출판사

5) 1930년에 여성문맹률이 89.5% 였고, 1955년까지도 중학교 남학생 수가 357,322명인데 비하여 여학생은 118,020명으로 (동아일보, 1986.4.4.: 7) 남학생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의 교양교육을 위해서 1950년대 말부터 백과사전 교양서가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분야로 예절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백과사전의 교양서는 50년대 말부터 1980년까지 꾸준히 발간되었는데<표1 참조>, 그 중 여원(1959)의 현대여성생활전서 중 제8권 예절서 내용을 보면 전통예절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예절과 서구의 에티켓까지 소개하고 있었다.

백과사전에 포함된 예절서는 서구문화 유입 후 여성에게도 전통사회에서의 규방 내 예절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한 기초 소양 교양으로서의 예절교육도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이후 경제적 타개책으로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늘고 있었고 미군정기간의 영향으로 여성들도 관청이나, 회사·자유영업 등으로 진출하기 시작한(조경원, 2000 : 274)영향력도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생활환경에 놓여 있었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므로(장미경, 1999 : 311) 사회생활예절교육은 일부계층의 교양활동에 불과하였다.⁶⁾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과 사회적인 지위상승은 1960년대 후반 시대적인 사회상황의 변화와 함께 일어났다. 국가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하는 시책이 강조되었던 제3공화국에서는 여성들에게 국가 또는 국민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매일경제, 1972.5.18.: 7).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여성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임을 자각시키고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확대시켰다. 특히 초등의무교육의 실시는 여성교육기

회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⁷⁾. 초등교육 의무화로 대부분의 여학생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여성들의 학교교육이 보편화되었고 중등학교로의 진학률이 증가하였다(조경원, 2000 : 265). 초등의무교육의 첫 수혜자는 베이비붐세대⁸⁾로 이들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1966년)의 혜택을 보았고 1958년 출생 이후 연령층은 고교평준화(1974년) 이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방하남, 2011 : 7), 여성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고등학교 여학생수를 보면 1952년에 19,259명(남학생 104,368명), 1960년 66,900명(남학생 197,044명)으로 남학생의 30%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722,394명(남학생 974,398명)으로 남학생수에 근접하고 있었다(동아일보, 1986.4.4.: 7). 이처럼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은 이전세대에 비해 확대된 교육기회를 가졌으나 교육인프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세대였다. 때문에 이들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세대의 희생과 관심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고 성장하면서 적극적이고 성취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이러한 특징은 이후 자기개발이나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까지도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이 교육받은 여성으로 커리어를 추구하였지만 사회에서는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김미령, 2011 : 9).⁹⁾ 또한 교육수준이 향상된 베이비붐 세대가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1980년대는 경제성장과 산업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사의 기계화·합리화로 여성들이 과중한 가사노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 시책

6) 1960년의 여성문맹률이 39.8%에 이르고, 여자 고등학생이 66,900명, 여자 대학생이 17,049명에 불과하였으며, 1960년에 사회활동을 하였던 전체여성취업자중 62.2%가, 66년에는 45.5%가 무학력자였음을 볼 때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중에서도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계층은 많지 않았다. (동아일보, 1986.4.4.:7)
 7) 초등의무교육은 1954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실행되면서 1959년 96%, 1960년 99.8%의 취학률을 달성하였다.
 8)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55년에서부터 산아제한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되었던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이다.
 9)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다.

인 산아제한정책으로 자녀수가 1~2명으로 감소하면서 육아와 그에 따른 가사부담도 이전세대보다 감소하였다.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된 여성들은 자기개발이나 사회참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방법으로 사회교육기관의 각종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교육 중에 예절교육이 있었고, 이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은 일부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인 교양이었다.

한편,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적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여성들은 교육내용에 있어 성차별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관 교육이 구태의연한 부덕(婦德)과 가사실습을 위한 예절교육 위주로 되어 있음을 문제시 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동아일보, 1989.4.1.: 9). 1990년 여성개발원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예절교육에 있어서 여학생에게는 가정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적영역에서의 관습적, 타율적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반면 남학생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자세와 판단력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등 탈관습적, 자율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1991.1.10.: 9). 또한 사회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던 기존의 전통 여성상을 강조하던 신부수업교육을 여성들이 외면하게 되면서 수강생 부족으로 강좌가 폐강 되고 있었다(동아일보, 1993.5.22.: 17).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 1998년에 교육부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남녀평등교육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교육기본법¹⁰⁾에 의해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이 제정¹¹⁾되는 등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만을 강조하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 여성들의 예절교육 참여과정과 활동

학력과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여유를 갖게 된 중산층 주부들이 자아를 찾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그 시기에 ‘평생교육’ 개념이 도입되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조항에 ‘평생교육’이 명문화 된 후 1982년 12월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83년 사회교육법 시행령, 1985년 10월 사회교육법 시행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사회교육 육성방안을 강구,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권장과 평생을 배워야 한다는 자각(自覺)이 일치해 사회교육은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자아평가와 생애계획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생활여건의 향상, 교육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꾀하며 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했고(권영자·김재인, 1987: 2-5), 여성들은 사회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그 하나로 여성들은 당시 여성유림회, 예지원, 주부교실, 한국전례연구원(현 재단법인 한국실천예절문화원) 등에서 개설하였던 예절교육에 참가하여 예절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명원재단과 차인연합회는 여성들에게 전통차문화를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절도 있는 차생활을 위해 생활예절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이 전통차문화와 함께 예절을 접하게 되면서 차문화(茶文化)와 예절은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합되었다. 차문화를 접한 여성들은 올바른 차문화를 위해서 예절을 배우고자 하였고, 예절을 배운 여성들은 ‘차’가 예절과 인성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10)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정 1997. 12. 13. 법률 제5437호)

11)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제정 2000.9.25. 대통령령 제16973호)

인식하여 차교육과 예절교육을 접목하여 발전시켰다. 따라서 예지원, 명원재단, 예명원 등 여성들이 설립한 단체에서 여성들에게 전통차와 더불어 생활예절교육을 하게 되었다<표5 참조>. 이들 단체들은 차교육과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실시함으로써 예절교육의 장을 차문화계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예절교육기관에서 우리의 문화를 익히고 예절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이후 88서울올림픽 유치에 계기로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예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예절 교육자로서 일선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은 전통예절의 현대화 작업(동아일보, 1987.6.2.; 7)과 예절보급에 앞장서는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동아일보, 1988.2.1.; 7).

1980년대까지는 민간예절단체가 예절교육을 주관하였으나¹²⁾ 1990년대 들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1994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절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문화원은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 문화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예절교육의 장이 되었다. 일부 시도는 시장관사를 시민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 대상 생활예절·다례·학교방문예절교육 등 다양한 예절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예절관으로 운영(국민일보, 2002.7.14.)하였고¹³⁾, 이에 위탁 교육할 예절 강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절강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민간예절교육단체는 예절강사 양성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양성된 예절강사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예절전문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

문적인 예절강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예절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자격을 갖춘 여성들은 전국의 각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에서 예절강사로 활동하게 되었고¹⁴⁾ 스스로 예절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우리사회는 기업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으로 변화되었고 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업경영이념에 고객우선주의가 중요시 되었다. 글로벌 직장예절과 대고객서비스예절이 기업성장의 주요요소가 되면서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이 산업계 전반에서 요구되었다(동아일보, 1993.4.19.: 11). 이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예절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서비스전문교육기관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그 선구자는 대한항공산하 종합예절전문교육기관인 서비스아카데미였다(매일경제, 1993.5.20.: 27)¹⁵⁾. 이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사 직원들을 교육했던 예절교육이 일반기업으로 파급되었으며, 교육의 특성상 젊은 여성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서비스예절교육 분야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CS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정보화·다문화사회로 들어섰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예절교육도 생활예절에서 글로벌예절, 정보통신 관련예절 등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다문화사회화 되면서 우리의 전통예절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¹⁶⁾되면서 예절교육은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 12) 성균관대학교 내부부의 후원으로 예절교육을 하게 되었지만 그 주관은 성균관이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한다고 보기 어렵다.
- 13) 2000년 안양시가 처음으로 시장관사를 안양예절관으로 운영하였고 2002년에는 과천시가 시장관사를 청소년예절교육기관으로 운영하였다.
- 14) 일례로 1999년 6월 16일자 경향신문 17면을 보면 “다도 배운 주부들이 예절 강사로”라는 제목으로 다도를 배운 주부들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절 강사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 15) 서비스아카데미는 개원 후 6개월 만에 기업직원 3천1백명을 위탁 교육할 정도로 대고객서비스예절교육의 요구가 높았다.
- 16) 인성교육의 사회적 요구로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도 2011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창의 인성교육’을

중요성이 부각되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예절교육분야와 기관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예절교육단체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이 전국적으로 예절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예절교육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례로 예절교육단체인 한국전례연구원의 경우 1993년부터 2011년 1월 말까지 배출된 예절지도강사는 총인원 1,334명이며 이중 남성은 367명, 여성은 967명으로 여성이 3배 가까이 배출되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전국 234개 성균관지역향교와 100여개의 성균관여성유도회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도 학부모 예절명예강사로 양성된 여성들이 전국 22개의 예절지도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 29개의 예절교육기관과 제휴되어 예절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전례연구원(현 재단법인 한국실천예절문화원)과 전국 17개 지부가 있는 한국전례원에서도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초로 여성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예지원은 미국뉴욕에 지부가 있어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예절을 알리는데 한발 앞서 활동하고 있고 전국에 32개의 지회를 갖고 있는 예명원과 24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한국 차문화협회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예절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절을 교육하는 예절단체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고 자료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예절단체의 수와 활동하는 예절 강사의 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¹⁷⁾. 때문에 각 예절단체의 website에 제시되어 있는 지부의 숫자를 파악하여 전국적인 예절강사의 활동을 유추해 볼 수 밖에 없었다.<표 2 참조>

〈표 2〉 대표적 예절단체 지부 및 협의회 현황
(2011년 11월 기준)

No.	기관명	개소
1	성균관 지역향교	234
2	여성유도회 지부	100
3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절지도자회	22
4	한국전례연구원 제휴기관	29
5	한국전례원 지부	17
6	예지원 지부	3
7	예명원 지부	32
8	(사)한국예절문화원 지부	2
9	(사)한국차문화협회 지부	24
10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차예절지도사자격과정개설기관	11
11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예절교육지도사자격과정 개설기관	4
12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전통차예절지도사자격과정개설기관	8
계		486

3. 예절교육 전문성 강화와 자격제도

예절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예절강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었다. 이에 예절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일환으로 예절자격제도가 민간예절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9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 도입되면서 예절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었다. 여성들은 예절강사로서 활동하기에 앞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격 검증 장치인 예절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예절지도사자격증은 가정학계에서도 시도되고 있었는데, 한국여성교양학회에서는 1993년부터 2

도덕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17) 단체의 담당자에 의하면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활동인원의 대부분이 여성들임을 말하고 있었다.

년제 대학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예절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여 1997년 11월 까지 총 6,029명의 ‘생활예절지도사’를 배출하였다(조희진·문혜숙·김정신, 1997 : 327-328). 이후 한국여성교양학회는 예절지도사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예절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선자(1999)는 가족자원경영학회에 ‘예절지도사’ 제도화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학회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회 자격증의 특성상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예절지도사’ 자격증만으로 예절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예절자격증은 사회참여와 자기실현을 위해 예절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생활의 경험이 있는 주부

들에 의해 보다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절지도사자격증제도는 예절교육단체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부여하게 되며, 전국 18개의 예절교육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http://www.pqi.or.kr/)<표3 참조>. 일례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는 4개 대학이 예절교육지도사과정을 두고 있고, 8개 대학이 전통차예절지도사 과정을 두고 있어 예절과 관련된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다. 한국국공립대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도 11개 대학이 예절지도사 관련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예절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다(http://www.kula.or.kr/).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예절교육지도사자격증과 전통차예절지도사자격증 발급현황을 보면 예절교육지도사자격증은 2001년 이후 2011년까

〈표 3〉 예절자격증 발급 기관 현황

No.	등록번호	구분	자격명	자격관리기관
1	2011-0657	비공인	예절지도사	(사)한국자격진흥협회
2	2011-0564	비공인	전통차예절지도사	(사)국제차문화교류력재단
3	2011-0390	비공인	인성예절체험지도사	한국예절대학
4	2011-0022	비공인	전통예절지도사	(사)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5	2010-0420	비공인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재)명원문화재단
6	2010-0412	비공인	전통차예절사범증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7	2010-0384	비공인	예절지도사	(사)한국문화교육협회
8	2010-0264	비공인	차문화예절지도사	(사)한국차문화협회
9	2009-0330	비공인	예절교육지도사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10	2009-0288	비공인	전통차예절지도사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11	2009-0285	비공인	예절교육지도사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12	2009-0252	비공인	차도예절사자격증	(사)한국담마요가협회
13	2009-0227	비공인	예절지도사	(사)한국전례원
14	2008-0591	비공인	예절지도사자격증	(사)설가차문화연구원
15	2008-0448	비공인	청소년예절지도사	(사)월드유스비전
16	2008-0427	비공인	예절자격증	(재)한국실천예절문화원
17	2008-0142	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18	2008-0085	비공인	차예절지도사	(사)한국국공립대평생교육원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서비스 2011년 12월)

지 374명이 취득하였고, 전통차예절지도사자격증은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1,123명이 취득하였다. 자격 취득자는 대부분 평생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이었다(<http://www.kauce.or.kr/>).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2011년 상반기에만 예절교육분야로 147명의 여성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http://kace69.cafe24.com>). 유일한 국가공인 예절자격증인 실천예절지도사는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5회에 걸쳐 총 1,83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http://www.pqi.or.kr/>). 실천예절지도사자격증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취득하였으며,¹⁸⁾ 자격을 갖춘 여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4. 여성을 주축으로 한 예절단체

예절교육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한국YWCA연합회나 전국주부교실에서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들이나 주부들의 소양교육으로 예절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곳에서 교육받은 주부들이 그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국YWCA연합회나 전국주부교실에서의 예절교육은 여성들이 예절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곳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예절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전례연구원과 같은 민간 예절교육단체에서 예절강사로서의 전문적인교육을 받은 후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예절교육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들과 그들의 단체에 대해

서 예절교육 시작 연도 순서로 보면 <표4>과 같다. 이들 단체는 1980년대 까지 설립되어 예절교육의 선도역할을 한 단체로 현재 여성이 책임자로 있으며 예절강사양성과정을 행하고 있는 단체들 위주로 선정하였다.¹⁹⁾ 이들 단체의 수료생들은 대부분이 여성들로서 여성에 의한 여성들 대상의 예절교육단체라고 할 수 있다.

<표4>에 제시한바 같이 한국YWCA연합회는 사회단체로 예절과 관련된 교육을 처음 시작한 단체였다. 김활란, 김필레 유각경에 의해 1922년 창립된 한국YWCA연합회는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쓴 단체로 여성의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http://www.ywca.or.kr/>). 한국YWCA연합회에서 혼인을 앞둔 미혼여성을 위한 특별강습에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1968년의 일(경향신문, 1977.1.20.: 5)이었다. 강좌는 큰 호응을 얻었고 이후 타 기관에서 이러한 교실을 개설²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YWCA연합회의 교육은 사회전반의 예절 실천과는 별개로 여성들의 결혼 준비 과정의 예절에 관한 내용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여성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 위치에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전통에 입각한 여성의 부덕(婦德)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평등에 눈을 뜨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는 여성들이 이러한 강좌를 외면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단체로서 주부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의례교육의 시작은 1977년 전국주부교실에서 개설한 ‘상설 주부대학’이었다(매일경제, 1977.4.4.: 6). 주부대학에서는 여성을 가정의 중심으로 보고 주부들 대상의 예절과 의례강좌를 개설하였다. 초기 주부교실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이 예절교육의 중요성에 눈을 뜨

18)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의 책임자와 유선으로 접촉한 결과 자격취득자의 남·여 구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취득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타 예절자격증발급기관의 책임자의 확인으로도 기관의 예절자격 취득은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서 였다.

19) <표4>의 예절단체에 한국전례연구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전례연구원은 대표적 예절교육단체이나 대표가 여성이 아니라서 제외되었다.

20) 이후 전국주부교실, 예지원, 여성유도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이 유사한 교수반을 개설하였다.

기 시작하였고 이후 예절교육과정에 참여한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후 민간예절단체가 전문적인 예절교육을 시작할 때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예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적극적으로 예절교육의 일선에 참여하여 1세대로서 역할을 하였다.

〈표 4〉 여성 중심의 예절단체 현황

No.	기관명	설립 연도	예절교육시 작연도	주요 사항	대표
1	한국YWCA 연합회	1922	1968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예절교육시작	차경애
2	전국주부교실	1971	1977	▲6개월과정의 주부대학원을 운영. ▲2011년 12월 현재 제78기 수료 ▲생활예절, 혼례예법, 상장례등의 강좌 개설	안명수
3	예지원	1974	1977	▲여성대상 예절교육으로 예지반 174기, 규수반 171기 교육 ▲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 진행 ▲예절다도 교수양성과정과 가정의레지도사양성과정 운영 ▲3개 지부 운영	강영숙
4	여성유도회	1975	1980	▲명덕학당 개설하여 신부학교 시작. ▲여성유림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여성예학원을 운영. ▲100여개의 지부에서 예절교실 운영.	정승근
5	(사)청년여성 문화원	1985	1985	▲‘예(禮)운동’을 양성평등적 사업으로 운영. ▲예절지도사 교육사업을 통해 주부들을 사회교육 강사로 훈련, 사회참여와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	진민자
6	(사)예명원	1987	1987	▲한국전통예절문화와 차문화 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생활예절, 직장예절, 국제예절등 교육. ▲전국 32개의 지회. ▲2011년 현재 52회기의 지도자교육 실시.	손민영
7	(사)한국예절 문화원	1988	1988	▲전통예절문화의 계승 및 발전, ▲올바른 가치관과 심성개발, 예절바른 생활태도 함양을 목표. ▲예절교육과정-주부대학, 신부대학, 특수대학원, 예절지도자 과정, 평생교육반과정, 5개 과정 운영	남상민
8	(사)한국차 문화협회	1979	1994	▲차생활지도사범으로 갖추어야 할 우리예절과 관련된 제반 분야를 교육 ▲한국차문화대학원을 출범하여 예절교육과 차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전국 24개 지부 ▲민간등록 차문화예절지도사자격증 시행	이귀례
9	명원문화재단	1960	1998	▲차생활의 기본인 생활예절과 생활다례법 교육 ▲민간등록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자격증 시행 ▲2년간의 사범과정과 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예절강사로 활동	김의정
10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1969	2006	▲학교예절명예교사활동을 통해 학생들 인성지도 ▲학부모 예절명예교사 양성 ▲전국 22개의 예절지도자회 운영	차광은

한국YWCA연합회나 전국주부교실이 사회단체로 여성들을 위한 교양수업의 일부분으로 예절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에 반해 전문적인 예절교육만을 위해 개인이 개원하고 활동한 민간단체가 예지원이었다. 예지원은 1977년에 예절교육을 시작하면서 여성들에게 우리의 전통예절을 교육하면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았다. 예지원의 설립자 강영숙은 1991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회상하길 “우리의 전통이 여기서 단절된다면 우리 세대는 씻지 못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2천 년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우리 예절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생각에서 방법을 찾은 것이 예지원이다”라고 하였다(매일경제, 1991.2.10.: 7). 특히 예지원은 초기부터 외국인에게 우리의 예절을 바탕으로 한 생활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수준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현재 예지원에서는 예절교육을 담당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예절다도 교수양성과정과 가정의례지도사양성 과정을 개설 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지반은 174기, 예지반과 혼인을 앞둔 신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수반은 171기를 교육하는 등 개원 초부터 지금까지 예절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여성 예절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http://www.yejiwon.or.kr/>).

예지원에 이어 여성들이 예절교육에 뜻을 두고 민간 예절교육기관을 개설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중반이후였다. 예절교육단체를 설립한 대표적인 여성으로 (사)청년여성문화원의 진민자, (사)예명원의 손민영, (사)한국예절문화원의 남상민을 들 수가 있다. 이들은 혼자의 힘으로 예절기관을 만들어 여성들이 우리사회의 예절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 예절교육인을 키우기 시작한 1세대 여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청년여성문화원은 청소년과 주부들에게 옛것에 담긴

우리 민족정신을 일깨워주고 예법교육을 하였으며, 개원 초부터 성년례를 전통방식의 관례와 케레로 꾸준히 진행하였다. 현재 청년여성문화원은 ‘예(禮)운동’을 양성평등적 사업으로 펼치고 있으며 예절지도사 교육사업을 통해 주부들을 사회교육 강사로 훈련, 사회참여와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http://www.cyw.or.kr/>). (사)예명원은 한국 전통예절문화와 차(茶)문화 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생활예절 습득과 심성 및 자기개발을 위해 교육하고 있으며 전국에 32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2011년 현재 52회기의 지도자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학교와 일반사회단체에서 교육할 수 있는 예절강사를 양성하고 있다(<http://cafe.daum.net/iyemyung>). (사)한국예절문화원은 전통예절문화의 계승 및 발전, 현대인의 올바른 예절의식, 올바른 가치관과 심성개발, 예절 바른 생활태도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구 지부와 문경지부가 있다(<http://www.etiquette.or.kr/>).

우리사회에서의 예절을 바로 세우는데 오랜 역사를 가진 성균관에서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나선 것이 여성유도회의 창설이었다. 1975년 유도(儒道)를 숭상하는 집안의 주부 1백여명이 모여 창설했는데 지금까지 여자가 유림이 될 수 없었던 선례를 깬 것이었다(경향신문.1975.5.24.: 7). 여성유도회는 초기에는 명덕학당을 개설하여 신부학교를 운영하였으나 1983년 전국 234개소의 성균관 향교가 정부의 후원으로 예절교육기관으로 기능하기 시작(동아일보.1983.6.24.: 11)하면서 여성들이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예절교육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여성유림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여성예학원(女性禮學院)을 부설,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국 및 해외에 10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청소년과 일반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하고 있다(<http://www.aks.ac.kr/>).

한국의 차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발족한 차 관련단체로서 차문화와 예절교육을 접

목하여 교육시키고 있는 단체로는 명원문화재단과 (사)한국차문화협회가 있었다. 명원문화재단은 한국의 차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1960년 명원다회를 설립하였고 1995년에는 명원문화재단으로 바뀌면서 1998년 제1회 전국 주부·청소년을 위한 전통차문화·예절 특별강좌를 주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명원문화재단은 예절교실에서 차 생활의 기본인 생활예절과 생활다례법을 문화체험과 함께 공부하면 수료증을 교부하고 있다. 차와 예절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사범과정을 마치고 1급·2급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문화센터와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http://www.myungwon.org/>).

(사)한국차문화협회는 1991년 설립되었고 1992년 제1회 차생활 지도사범 연수회를 가지면서 차생활 지도사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우리예절과 관련된 제반 분야를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2월 20일 2년 과정으로 제1기 차생활 지도사범 78명을 배출한 이후 2010년 2월에 제34회 차생활 예절 지도사범 동계연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문사범 과정으로 2003년 한국차문화대학원을 출범하여 예절교육과 차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심화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4개 지부에서 여성들이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등록예절자격증으로 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http://www.koreatea.or.kr/>).

이외에 예절교육만을 위한 단체는 아니나, 청소년들의 예절을 그들 부모의 손에 의해서 가르치기 위해 명예예절교사를 시작으로 하여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끈 한국지역사회교육협회의 예절지도사회가 있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지역사회교육협회는 학부모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절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절명예교사 양성을 함으로써 학부모들에 의한 청소년의 예절교육을 주도해 가고 있으며, 각

지역의 예절교육관과 학교 예절명예교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돕고 있다. 청소년들의 예절교육 시작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해 볼 때 학부모들에 의해 진행되는 예절교육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체는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KACE인문교육원(구 KACE예절다도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문화를 바탕으로 고전, 예절, 다도, 다화, 글로벌 매너코칭, 국악 등 인문교양과 인성교육을 현대 생활에 맞게 연구·보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만 예절교육분야로 14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에 22개의 예절지도사회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http://kace69.cafe24.com/home>).

이상과 같이 예절단체들의 활동을 볼 때, 여성들의 사회활동단체였던 한국YWCA연합회, 전국주부교실이 예절교육을 선도하였으며, 뒤이어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한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예절교육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예지원의 강영숙, 청년여성문화원의 진민자, 한국예절문화원의 남상민, 예명원의 손민영, 명원문화재단의 김의정이 대표적이었다. 차문화와 연관된 생활예절교육에서 시작해 우리의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로는 한국차문화협회와 명원문화재단이 있었다. 각 지역사회의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성지도를 위해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전국의 234개의 향교와 유대하여 청소년의 예절교육을 위해 힘쓰는 여성 유도회의 활동은 각 지역사회의 예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들 단체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어 그 활동영역이 광범위하며 예절강사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 예절전문인 과정이나 예절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제도를 두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단체 중 예명원과 한국예절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절전문가 교육과정을 살

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들의 예절단체는 생활예절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의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예절교육 참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예절교육을 위하여 학문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후학을 길러낸 여성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조기홍, 박경자, 이인희, 정충량, 주월영, 이길표, 강영숙, 남상민, 이정우와 같은 여성 학자들의 연구와 그들이 집필한 예절서적은 예절교육현장의 교과서로도

5. 예절 서적의 집필자인 여성들

<표 5> 예절지도자 교육 내용

기관명	(사) 예명원	(사)한국예절문화원
교육 내용	-180시간 수료 후 정사범자격증 -120시간 수료 후 준사범자격증 수여	
	지도자교육 내용 *전통예절 -한국인의 예의사상(가정의례준칙) -한복 바르게 입는법 -관례와 제례 -혼례 이론과 실습 -상례(상주예절과 문상예절)실습, -제수의 종류와 의식절차, -설,추석 명절 (상차림의 절차와 의미) -인사예절(남,여 큰절, 작은절, 기타절) -행동예절 발표 *생활예절 -인사예절(실습), 전화예절, 바른호칭, 대화법, 올바른 제스처 -직장인의 자세와 예절, 공동생활 에티켓 -양장(정장)바르게 입는법 -국제매너실습 -행동예절실습 -바람직한 자기관리와 대인관계 -손님맞이 예절, 호감 받는 표정 -자기표현과 연출법 *다도 -차의 역사,차의성분과 효능, 생활다례법, 규방다례법, 선비다례법, 어린이다례법, 동양삼국의 차생활(녹차·말차·오룡차 다례법), 다식만들기, 도자기견학 미술관, 박물관 견학 중 택1	예절지도자반 총 40시간 교육 예절지도사 양성과정 -한국인의 예절의식, -인사예절 -언어예절 -가족과 친척간의 예절 -직장생활 예절 -복식예절 -관계례, 혼례, 상례, 제례, 차례, -세시풍속 -다례 -식문화 예절 예학대학원 예속학과 강의 총 72시간 교육 전통예절 전반에 관한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 -예절개념론 -한국인의 예절의식 -통과의례 (돌,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의례별로 문화론, 실습 실시 -식생활문화론

〈표 6〉 여성이 주 집필자인 예절 서적

No.	연도	주 집필자	서적 명, 출판사
1	1954	조기홍,권청자	예법, 대양출판사
2	1959	여원사편집부	현대여성생활전서 제8권 예절, 여원사
3	1960	최옥자	에티켓, 수도여자사범대학출판부
4	1964	정충량	현대여성라이브러리 제3권 여성과 에티켓, 삼중당
5	1965	이인희	현대인의 에티켓, 매력에의 초대, 수학사
6	1966	전혜영	현대여성에티켓, 구미서관
7	1969	정충량	현대여성백과사전 2 사교: 에티켓, 삼중당
8		황진옥	교제에티켓선생, 불이출판사
9	1971	조기홍 박경자	생활교육(기초편), 신구문화사
10	1972	모은숙	에티켓 편지투, 오름출판사
11	1973	전혜영	현대여성에티켓, 대일출판사
12		정몽화	예절, 형설출판사
13	1974	주월영	예법사전, 수학사
14	1975	김복길	생활속의 의례, 성문각
15	1980	조기홍 외	예론,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6		전희정	현대인의 테이블매너, 삼성출판사
17	1989	남상민	한국전통혼례, 한국예절문화원
18	1990	신양순	센스있는 직장여성 에티켓 ABC, 태웅출판사
19	1991	한국여성교양학회	생활예절, 양서원
20	1993	김옥희	생활예절, 양서원
21		이경애	성공의 비결은 에티켓에서, 일신서적출판사
22	1994	안순진	에티켓 교실, 자유문학사
23	1995	강영숙	누구나 알아야 할 생활예절, 문학아카데미
24		김정옥	예절교육, 정우사
25		한정혜	매너스쿨, 김영사
26	1996	남상민	예절학, 박영사
27		박춘옥	현대인의 생활예절, 신지서원
28		이인숙	해외여행 매너여행, 한국능률협회
29		이정우	생활예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30		임희규 외	생활예절 : 현대인을 위한 교양 필독서, 동문사
31		정덕희	신세대 여사원의 예절, 풀잎
32	1997	한정혜	매너는 매력이다. 석필
33		정영숙	예절교육, 양서원
34	1998	주영애,이영숙	부모와 교사를 위한 유아의 생활예절, 양서원
35		남성희	현대생활과 예절, 학문사
36		이정우	생활문화와 예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37	1999	강영자	생활문화와 예절, 교육과학사
38		문학희	예절을 바로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을파소
39		이선희	글로벌시대의 국제 매너와 에티켓, 한울출판사
40	2000	손민영	예다론, 대전실업전문대학
41		우혜영	사회인의 직장예절, 학문사
42		홍윤선	클릭 네티켓, 네티즌 에티켓 A to Z, 중앙 M&B
43	2001	최정화	매너 나의 경쟁력이다. 조선일보사
44		김신연	전통생활예절, 민속원
45		이미선	적극적으로 때로는 당당하게, 무한
46	2001	이정우 외	지구촌 생활문화와 국제매너, 양서원
47		임혜경	신세대를 위한 예절 길라잡이, 호미
48	2002	금한나	이미지와 국제매너, 한울출판사

No.	연도	주 집필자	서적 명, 출판사
49		김영경 외	향기나는 매너 감동주는 서비스, 호미
50		김은희	예절과 서비스, 대왕사
51		박혜숙	셋별이랑 한별이의 사회 예절 배우기 : 예절동화, 대교출판
52		안혜숙 외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신정
53		이현주	예절과이미지:세상을 살아가는 작은비밀-캔디의예절, 중문화사
54		자운영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예절 58가지, 능인
55		정영주	나도 때론 사랑스런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다,느낌이 있는 나무
56	2003	구영본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 형설출판사
57		김정신 외	생활예절, 한국여성교양학회예절연구회, 신정
58		박춘옥	한국인의 생활예절, 신지사원
59		백옥련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레의 범절, 사회과학출판사
60		이정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대생활매너,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61		임혜경 외	생활 속의 매너 ABC, 새로운 사람들
62		장경옥 외	(국제화 시대의)에티켓과 매너, 남두도서
63		허은아	매너가 경쟁력이다. 아라크네
64		이길표,최배영	일반생활예절, 청목문화사
65		2004	김은희 외
66	김정신 외		유아예절교육, 교문사
67	2005	김태경	차와 예절, 홍익출판사
68		엄문자 외	비즈니스 매너, 건국대학교 출판부
69		이영희 외	현대인의 생활매너, 백산출판사
70	2006	조효순	한국전통생활문화와 현대예절, 일지사
71		구영본,신미경	글로벌시대의 차문화와 에티켓, 형설출판사
72		김미자	성공하는 리더의 글로벌 매너, 백산출판사
73		김주희	매너 백서, 북폴리오
74		김혜영, 최인려	비즈니스와 생활예절,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75		양희옥	현대사회와 예절실무, 형설출판사
76		이정우 외	(글로벌리더를 위한)국제매너와 생활문화, 양서원
77		정미영	이미지 메이킹과 서비스 매너, 청람
78		최배영 외	청소년 예절 교육, 새로운 사람들
79		2007	김인옥
80	김정		예절교육, 이화문화출판사
81	김정신 외		(교사를 위한) 유아 차 생활 예절, 교문사
82	민혜성 외		글로벌 에티켓과 매너, 대왕사
83	박민영		매혹의 언어 ; 스피치 & 매너, 태학사
84	송희라		송희라의 177 테이블 매너, 세계미식문화연구원
85	엄문자 외		매너, 건국대학교출판부
86	정영주		글로벌 매너, 요럴텐 요렇게, 영진미디어
87	2008	허은아	눈치코치 직장매너, 지식공작소
88		류은주	(품위있는 매너를 위한)이미지 관리론, 훈민사
89		모윤숙	(성공하는 리더의) 생활 에티켓, 일신서적출판사
90		문보영	국제예절, 대왕사
91		서미경	목소리디자인 성공을 좌우하는 보이스 & 매너 전략,중앙북스
92		이숙연	미용서비스론, 청구문화사
93		이정우 외	현대생활 매너, 양서원
94	2009	차성관 외	글로벌시대의 생활 예절, 시그마프레스
95		우혜영	사회인의 직장예절, 학문사
96		이수연	똑똑한 여자보다 매너 좋은 여자, 위즈덤하우스
97		조소은	미용서비스와 예절, 에듀컨텐츠 B&B

No.	연도	주 집필자	서적 명, 출판사
98	2010	계수경 외	글로벌 매너, 효일
99		권봉숙	글로벌 매너와 인성, 서원미디어
100		이경미 외	글로벌 문화와 매너, 한울출판사
101		주영애 외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 플러스, 신정

활용되면서 예절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연구 성과인 예절서적을 1945년부터 2010년까지 살펴봄으로써 예절교육의 흐름을 파악해 보았다.<표 6 참조>

도서관 5개소²¹⁾ 장서를 검색해 본 결과 1945년 이후 2010년까지 예절을 주제로 한 서적은 422여권이었으며, 그중 여성이 집필한 예절서적은 101권이었다. 검색된 장서 중 최초의 예절서는 1954년 조기홍의 「예법」이었다.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예절서적은 주로 가정학분야의 여성학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1945년부터 1970년까지 검색된 전체 예절서 18종 중 여성 학자에 의한 것이 8종이었다.<표 7 참조>. 그 중 1959년 여원사의 「현대여성생활전서」라는 백과사전 15권 중 제8권 「예절」의 집필진을 보면, 15명중 11명이 여성학자²²⁾이었으며 4명이 남성학자였다. 집필에 참여한 여성학자들은 대부분 가정 학자들이었다. 이를 볼 때 초기 예절교육은 가정학분야의 여성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발간되는 다수의 백과사전도 예절부분은 주로 여성 가정 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²³⁾ 여성학자들은 여성을 계몽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절서적을 집필한 것으로

보이며 제목도 ‘에티켓 있는 여성’이 되고자 하였던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에티켓’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 내용은 실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상황별 세부적인 예절과 그 마음가짐까지 언급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교양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당시까지도 일반 여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회생활 예절과 서양식 매너와 에티켓을 설명하는 이러한 예절서적은 소수의 교육받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초창기 여성학자들의 예절서 집필은 여학생의 교재로서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²⁴⁾ 일부 대학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선택 혹은 필수로 예절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성신여대의 ‘예론’, 명지대의 ‘생활예법’, 덕성여대의 ‘예법’ 등은 그 강좌의 역사가 1997년에 이미 20년 가까이 되고 있었다(김정신·노은호·정민자, 1997 : 7)

1971년에서 1990년까지는 일반인 대상의 민간 예절교육단체가 설립되어²⁵⁾ 실천을 강조한 교육을 시행하면서, 그들이 예절서적을 집필하게 되어 예절서도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분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²⁶⁾. 때문에 20년 동안 전체예절서는 54권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성들

21)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성신여자대학교 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가나다순)

22) 11명의 여성학자는 김병설, 김영옥, 김영숙, 박화성, 윤서석, 정충량, 조기홍, 주월영, 지경운, 최이순, 현병진이였다. (여원편집부, 1959).

23) 정충량이 대표적으로 「현대여성생활전서」, 「현대여성라이브러리」, 「현대여성백과사전」 등의 집필에 참여하고 있었다.

24) 1960년에 발간된 「에티켓」은 수도여자사범대학부학장인 최옥자에 의한 것으로 수도여자사범대 학출판부에서 발간했다(최옥자, 1960). 이후 학원내 출판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신여자대학교의 조기홍·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의 이정우, 건국대학교의 엄문자의 예절서적이 있었다.

25) 예지원, 한국전례연구원, 성균관여성유도회등

26) 대표적인 예절서로는 1988년 한국전례연구원의 김득중이 집필한 「우리의 전통예절」이 있다.

〈표 7〉 연도별 예절서 총 발간 수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1951	0	1961	1	1971	4(1)	1981	1	1991	6(1)	2001	15(4)
1952	0	1962	0	1972	3(1)	1982	3	1992	9	2002	16(8)
1953	0	1963	0	1973	3(2)	1983	1	1993	10(2)	2003	25(9)
1954	1(1)	1964	2(1)	1974	2(1)	1984	4	1994	15(1)	2004	20(2)
1955	1	1965	1(1)	1975	2(1)	1985	2	1995	14(3)	2005	12(4)
1956	0	1966	2(1)	1976	0	1986	1	1996	20(7)	2006	31(8)
1957	0	1967	1	1977	2	1987	4	1997	16(2)	2007	31(9)
1958	1	1968	1	1978	1	1988	8	1998	10(2)	2008	20(7)
1959	1(1)	1969	3(2)	1979	0	1989	5(1)	1999	15(4)	2009	29(3)
1960	2(1)	1970	1	1980	3(2)	1990	5(1)	2000	19(3)	2010	17(4)
소계	6(3)	소계	12(5)	소계	20(8)	소계	34(2)	소계	134(25)	소계	216(58)

예절서 총합계 422권 (여성학자 예절서 총합계 101권)

()안은 여성학자 예절서 발간수

의 예절서 단행본은 10권에 불과하였다<표7 참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들이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필요하게 된 예절서적을 집필하였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예절교육의 발전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⁷⁾ 직장예절에 관한 서적은 1990년에 출간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14권의 서적을 여성들이 집필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전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80년대 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국제매너에 관한 예절서의 필요가 대두되자 1996년 이인숙의 「해외여행, 매너여행」의 시작으로 2010년까지 16종의 국제매너에 관한 여성학자의 예절 서적이 집필되었다. 1990년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예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에 관한 예절 서적 7권이 집필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 예절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인터넷예절에 관한 서적이 2000년에 발간되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이미지 관리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2001년 「신세대를 위한 예절 길라잡이」같이 젊은 세대를 위한 매너나 이미지관리 서적이 발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예절의 관심분야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예절 서적 집필내용의 강조되는 분야가 달라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가 글로벌화 되고 글로벌예절이 강조되면서 서적 제목에 다시 매너와 에티켓이 강조되고 있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시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증가된 예절분야에 따라 예절 서적의 집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학자들은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예절교육을 위한 예절 서적을 집필하여 예절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천적

27) 한국예절문화원의 남상민은 1989년 「한국전통혼례」, 1996년 「예절학」을 집필하였고, 1995년 예지원의 강영숙은 「누구나 알아야 할 생활예절」을 집필하였다.

〈표 8〉 여성 집필 예절서적의 제목에 따른 분류(1954년~2010년)

제목별 분류	연도별 발간 예절 서적 수량	수량
에티켓·매너	1960년 (1), 1964년 (1), 1965년 (1), 1966년 (1), 1969년 (2), 1972년 (1), 1973년 (1), 1980년 (1), 1993년 (1), 1994년 (1), 1995년 (1), 1996년 (1), 2000년 (1), 2003년 (3), 2005년 (1), 2006년 (1), 2007년 (2), 2008년 (2), 2009년 (1), 2010년 (1)	26
생활예절	1954년 (1), 1959년 (1), 1971년 (1), 1973년 (1), 1974년 (1), 1975년 (1), 1980년 (1), 1991년 (1), 1993년 (1), 1995년 (2), 1996년 (3), 1997년 (1), 1998년 (2), 1999년 (3), 2001년 (3), 2003년 (5), 2005년 (2), 2007년 (1)	31
글로벌예절	1996년 (1), 1999년 (1), 2001년 (1), 2002년 (1), 2003년 (1), 2004년 (1), 2006년 (3), 2007년 (2), 2008년 (2), 2010년 (3)	16
의례	1989년 (1), 2002년 (1), 2007년 (1)	3
예절학	1996년 (1),	1
청소년 예절	1997년 (1), 2002년 (3), 2004년 (1), 2006년 (1), 2007년 (1)	7
직장·서비스예절	1990년 (1), 1996년 (1), 2000년 (1), 2002년 (3), 2005년 (1), 2006년 (3), 2007년 (1), 2008년 (1), 2009년 (2)	14
인터넷예절	2000년 (1),	1
언어예절	2007년 (1), 2008년 (1)	2
합계		101

인 면의 이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계에서의 연구와 현장에서의 실천에 의해 우리사회의 예절교육을 이끌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은 앞으로 더욱 그 영향력과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III. 결론

여성들은 예절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오늘과 같은 여성중심의 예절교육현장을 만들었다.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교육기회확대와 교육수준향상, 그리고 여성의 자의식과 사회참여의식의 증대, 가사노동의 절감, 저 출산으로 인한 육아부담 감소, 법적·제도적으로 신장된 여성의 권리 등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 시켰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를 종합해 볼 때 여성

들의 예절교육활동은 몇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기에 예절교육을 담당한 여성들은 주로 자기개발과 자원봉사로 사회참여를 위한 주부들이었다. 특히 사회의 경제적성장과 여성 지위·역할의 변화와 같이 성장한 베이비붐 세대 주부들이 예절교육 활동의 참여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서비스예절교육이 활성화 되고 젊은 여성들이 예절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예절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예절단체를 주관하는 여성들은 그 활동범위가 전국적이며, 예절지도자과정과 지도사 자격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넷째, 예절교육을 위한 여성학자들의 예절 서적 집필은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절교육을 연구하고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사회 초창기 예절교육은 여성 가정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들에 의해 예절서 발간

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사회의 예절교육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그 양적확대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여성들이 예절교육에 참여를 시작하였던 1970년대 3-4곳의 단체에 불과하였던 예절교육단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수백 개에 이르고 있고 그 중심에 여성들이 있다. 이처럼 여성들의 활동증가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예절을 교육하는 예절단체에 대해 통합하고 총괄하여 관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예절을 교육하는 여성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갖추어 지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여성들이 예절교육에 참여한지 30여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고 재고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사료된다. 특히 예절교육 1세대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을 때 이들이 진행해 왔던 예절교육의 기초자료에 대해 구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 예절교육의 역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예절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시대적 배경과 산업화·도시화된 현대생활에 적용 가능한 생활예절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체계화되는 과정, 그리고 당시 예절 교육의 효과 등에 대한 문화기술적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이를 토대로 예절교육의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절교육 방향 설정에 지침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본다.

우리 사회에서의 초기 예절교육이 가정학자들을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와 병행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면, 현재는 예절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일반 여성들이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일반사회와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절교육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예절교육 전문가들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예절을 중심으로 예절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는 학자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가 다변화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예절교육이 요구되고 있고, 직장예절·국제매너·서비스예절 등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절교육분야가 다양화되고 예절교육기관의 양적확대가 꾸준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천적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예절교육현장에서는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여성 예절강사와 학자들의 유기적인 학문적 교류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향후 예절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의 예절교육 참여 현황, 교육대상별 예절교육내용 분석, 예절교육지원기관 등의 실태와 현황과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지향해야할 예절교육의 방향을 재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 보며, 나아가 예절교육의 발전과정에 기여한 여성들의 공헌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계선자(1999). 예절지도사 인증제 도입.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9(1), 37-47.
- 2) 교육과학기술부(2011).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 1-64.
- 3) 권영자·김재인(1987). 여성사회교육 요구분석.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10, 1-45.
- 4) 김미령(2011). 베이비붐세대, X세대, 준고령세대 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51, 7-34.
- 5) 김복순(2007).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화연구, 18, 7-60.
- 6) 김정신·노은호·정민자(1997).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경원전문대생을 중심으로. 논문집, 19, 295-326.

- 7) 방하남(2011). 베이비붐 세대 : 그들은 누구인가? 월간노동리뷰, 2011. 2, 5-9.
- 8) 여원편집부(1959). 현대여성생활전서 제8권. 예절. 서울: 여원사.
- 9) 장미경(1999). 새 여성학 강의-한국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서울:동녘. 305-330
- 10) 조경원·이배용(2000). 해방이후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양상. 한국교육사학, 22(2), 261-283.
- 11) 조희진·문혜숙·김정신(1997). 생활예절교육을 위한 한국여성교양학회의 노력과 역할. 한국여성교양학회지, 4(1), 326-342.
- 12) 최옥자(1960). 에티켓. 서울:수도여자사범대학출판부.
- 13) 하명희(2010). 예절 인지와 실천 및 학교 예절교육 요구도 분석: 학생, 학부모, 교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경향신문(1975). 여성유림회 창설. 1975. 5. 24. 7면
- 15) _____(1977). 뜻 깊고 유익한 신부수업.예의범절·육아 등 내용 다채. 1977. 1. 20. 5면.
- 16) _____(1991). 중고생 대상 학생교육원 프로그램 ‘남존여비식(男尊女卑式)’ 성차별. 1991.1. 10. 9면.
- 17) 국민일보(2002). 단체장 관사 시민 곁으로. 2002. 7.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
- 18) 동아일보(1983). 향교개방. 1983. 6. 24. 11면.
- 19) _____(1986). 여성 신교육(新教育) ‘100년의 성장(成長)’. 1986. 4. 4. 7면.
- 20) _____(1987). 전통예절 ‘시대에 맞게 되살리자’. 1987. 6. 2. 7면.
- 21) _____(1988). 예절실천운동 번져. 1988. 2. 1. 7면
- 22) _____(1989). 구태의연 부덕교육 고칠 때. 1989. 4. 1. 9면.
- 23) _____(1993). 신입사원 예절교육 강화한다. 1993. 4. 19. 11면.
- 24) _____(1993). 지나친 격식, 순종강요 싫다. 결혼예비교실 발길 뚝. 1993. 5. 22. 17면.
- 25) 매일경제(1972). 가정실습교육 강화, 문교부 지시. 1972. 5. 8. 7면.
- 26) _____(1977). 주부대학 개설. 여성단체 주부교실내. 1977. 4. 4. 6면.
- 27) _____(1991). 한국인의 정신 연구·계승의 현장을 찾아 (6) 예지원. 1991. 2. 10. 7면.
- 28) _____(1993). 예절전문교육 큰 인기. 1993. 5. 20. 27면.
- 29) 고려대학교 도서관. <http://library.korea.ac.kr/>.
- 30)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3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32) 네이버. <http://www.naver.com/>.
- 33)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 34)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dina.naver.com/>.
- 35)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36) 명원문화재단. <http://www.myungwon.org/>.
- 37)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
- 38)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snu.ac.kr/>.
- 39) 성균관. <http://www.skkok.com/>.
- 40)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sungshin.ac.kr/>.
- 41)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http://lib.sookmyung.ac.kr/>.
- 42) 예명원. <http://cafe.daum.net/iyemyung>.
- 43) 예지원. <http://www.yejiwon.or.kr/>.
- 44) 청년여성문화원. <http://www.cyw.or.kr/>.
- 45) 한국국공립대평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 46) 한국대학평생교육원. <http://www.kauce.or.kr/>.
- 4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www.aks.ac.kr/>.
- 48)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http://kace69.cafe24.com/home>.

49) 한국YWCA연합회. <http://www.ywca.or.kr/>.

50) 한국예절문화원. <http://www.etiquette.or.kr/>.

51) 한국차문화협회. <http://www.koreatea.or.kr/>.

- 투 고 일 : 2012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2월 21일